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구매 결정상황에서 자기해석과 해석수준이 위험감수 정도에 미치는 영향

김 화 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일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라도 결정의 수혜자에 따라 결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 스마트폰 구매 상황에서 금전적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지만 다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안과 금전적인 혜택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위험 감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사이에서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해 결정을 하도록 하여 결정의 수혜자가 결정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정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뿐 아니라 결정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향도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결정의 수혜자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개인의 자기해석과 해석수준의 영향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대상: 자기/ 타인) X 2(해석수준: 상위/하위) X 2(자기해석: 독립적/상호의존적)의 삼원 완전무선 요인설계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결정 대상과 해석수준 그리고 자기해석수준 사이에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독립적 자기해석으로 점화된 조건의 상위 해석자는 대상에 따라 위험감수 정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하위해석자는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의도가 증가하였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점화된 조건의 하위해석자는 결정 대상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위험감수 구매 의도가 모두 낮았지만, 상위해석자는 타인을 위한 결정일 때에는 위험감수 의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결정의 수혜자,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 자기해석, 해석수준, 위험감수 구매

[†] 교신저자 : 김화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ghkals07@knou.ac.kr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 가지 결정들 중에는 자기를 위한 결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도 포함된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결정을 내릴 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기는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계속 참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여러 연구들은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Kray(2000)는 자기를 위해 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하지만, 타인에게 조언을 할 때는 한 가지 차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결정과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Beisswanger, Stone, Hupp 및 Allgaier(2003)는 타인을 위한 결정일 때보다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할 때 더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Van Boven과 Loewenstein(2005)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당혹스러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함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앞의 연구들에 따르면 결정 결과에 따라 위험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은 서로 다른 결과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각이 되면 그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감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를 위한 결정일 때에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모두 고려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일 때에는 긍정적 결과가 우선적으로

로 고려되어 자기를 위한 결정일 때보다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다.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정도는 결정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기해석과 해석수준에 따라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Lerner, Streicher, Sachs, Raue 및 Frey(2014)의 연구와 Polman(2012)의 연구에서는 해석수준에 따라, Hamilton과 Biehal(2005)의 연구에서는 자기해석수준에 따라 위험감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개인차 변수로 해석수준과 자기해석을 투입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에 대해 보다 풍부한 통찰력을 얻고자 하였다.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은 기회비용을 고려한 결정의 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할지 또는 회피할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장면에서 소비자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제품 구매를 하게 될 수 있다. 결정의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험을 수반하지만 더 매력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덜 매력적이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제품 구매 결정 상황에서 제품의 상태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더 저렴하지만 위험을 수반하는 대안과 덜 저렴하지만 안전한 대안 사이에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결정에 대한 연구는

자기를 위해 결정을 할 때와 타인을 위해 조언을 해줄 때의 차이점을 다른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타인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내용과 자기를 위한 결정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기를 위해 결정할 때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에는 노력의 수준, 정보의 양(Fischhoff, 1992), 친숙성 그리고 동기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Kray(2000)의 연구에서는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할 때와 타인을 위해 조언을 할 때 고려하는 속성의 수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자기가 자가 용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는 가격, 안정성, 연비, 실내 공간, 외관 디자인 등 여러 속성들을 모두 고려하지만, 조언을 해줄 때에는 여러 속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속성에만 초점을 둘 수 있다. 연구 결과, 자기를 위한 것일 때에는 여러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하지만, 타인에게 조언을 줄 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차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ay와 Gonzalez(1999)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직무 만족이 높은 직업과 월급이 높은 직업 중에서 결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자기를 위한 결정일 때보다 타인을 위한 조언 조건에서 직무 만족이 높은 직업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자기를 위한 결정에서는 2개 속성이 전반적으로 좋은 대안을 선호하는 반면 조언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대안에 따라 추천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결정 상황에서 조언자들이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할 때보다 더 단순한 접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접적으로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을 비교하여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Laran(2010)의 연구에서는 연속적으로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에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 또는 친구를 위해 여러 가지 식품들 사이에서 4개의 식품을 연속적으로 결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을 위한 결정일 때에는 건강에 좋은 식품과 맛있는 식품을 적절하게 섞어서 결정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에서는 맛있는 식품 위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위한 조건에서 균형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 조건에서는 쾌락을 추구함을 보여주었다(Laran, 2010).

한편 동일하게 자기를 위한 결정이지만 자신의 현재를 위한 결정인지 미래를 위한 결정인지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연구에서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결정과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이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Pronin, Olivola, & Kennedy, 2008).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액체를 자기가 현재 순간과 다음 학기에 각각 얼마큼 마실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마실 수 있을 것 같은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미래의 자기와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양보다 현재 자기가 마실 수 있는 양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의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는 각 개인의 안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여겨져 왔다(Eysenck & Eysenck, 1977; Hanoch, Johnson, & Wilke, 2006; Zuckerman & Kuhlman, 2000). 그러나 위험감수를 다룬 후속 연구들은 조절 변수들을 추가하여 이 변수들이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을 함

께 다루면서 상황에 따라 동일한 개인이 더 안전한 대안을 결정할 수도 있고 더 위험한 대안을 결정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이라는 서로 다른 결정 상황이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다수의 연구들은 자기를 위한 결정일 때보다 타인을 위한 결정일 때 위험을 더 감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 왜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를 위한 결정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Beisswanger 등(2003)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면 타인을 위한 결정일 때보다 자기를 위한 결정에서 더 강렬한 감정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Van Boven & Lowenstein 2003). 이와 유사하게 Van Boven 등(2005)은 실험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당혹스러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함을 발견하였다.

자기를 위한 결정일 때와 타인을 위한 결정일 때 위험을 회피하려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Polman(2012)의 연구에서는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돈을 잃지만 앞면이 나오면 돈을 얻을 수 있는 게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로 위험 회피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위해 결정할 때에는 자기를 위한 결정일 때보다 게임에 내기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게임 거절 정도를 위험 회피의 지표로 사용한 결과,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에서 자기를 위한 결정일 때보다 위험 회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olman, 2012).

Beisswanger 등(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할 때와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을 할 때 위험감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에게 시나리오를 읽은 후 위험을 감수하는 대안과 위험을 회피하는 대안 사이에서 결정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위해 결정해주는 조건의 참여자들은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하는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위험 감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더 쉽게 무시하지만, 자기를 위한 결정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석수준

개인이 어떤 해석수준을 가지는지는 사건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상위수준과 하위수준 중 어떤 해석수준이 활성화 되는지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심리적 거리이다. 심리적 거리는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 확률적 거리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에 따라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친한 친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예상할 때에는 그들은 사무실의 환경과 같은 낮은 수준의 정보에 더 가중치를 두면서, 사회적 거리가 더 먼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미래의 승진 기회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정보에 초점을 둘 수 있다.

Kim과 Zhang(2008)은 시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 제품에 대한 해석 정도가 제품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시간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가 먼 경우 제품에 대한 해석 정도

가 높을수록 제품평가에서 더 호의적인 반면, 시간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 경우 제품에 대한 해석 정도가 낮을수록 제품평가에서 더 호의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상위 해석수준으로 추상적인 제품평가에 더 민감하고,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위 해석수준으로 구체적인 제품평가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Danzige, Montal 및 Barkan(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하고 실용적인 특성을 갖는 Ben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상적인 특성을 갖는 Adam 중에서 과제를 함께할 파트너를 결정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이상적인 대안의 지각된 중요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 추천하는 조건에서 높게 나타났고 실용적인 대안의 중요성은 자신을 위한 결정 조건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구에서는 해석수준을 조작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해석수준을 조작한 결과, 다른 사람을 위해 추천해주는 조건에 있는 참여자들 중 하위 해석수준으로 점화된 조건의 참여자들이 비점화 조건 또는 상위 해석수준으로 점화된 참여자들과 비교해서 이상적인 대안보다 실용적인 대안을 더 많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nzige et al, 2012). 이 연구 결과는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의 차이점을 해석정도가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석수준과 위험감수

Lermer 등(2014)의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해석 해석수준을 상황적으로도 점화한 후에 위험감수행동과 해석수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추상적으로 점화된 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점화된 참여자들보다 더 위험을

감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상위 해석자보다 하위해석자가 스스로를 위협한 상황에 들어가게 하려는 경향이 더 적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Polman(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를 위한 결정인지 타인을 위한 결정인지가 위험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수준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해석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행동정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위험 회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삶을 7가지 다른 측면에서 더 향상시키거나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기회가 있다고 상상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두 가지 기회 중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하위해석자의 경우에는 자신을 위한 결정일 때 위험 회피가 더 높게 나타나고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는 위험 회피 정도가 감소하였다. 반면, 상위해석자는 자신을 위한 결정일 때에도 타인을 위한 결정일 때처럼 위험 회피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Polman, 2012).

한편 시간적 거리와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Chandran과 Menon(2004)의 연구에서는 시간적 거리를 하루 또는 일년으로 구분한 뒤 스마트폰의 전자파 예방 행동의 난이도를 조작하였다. 난이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핸드프리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벨트에 스마트폰을 꽂아두고 다니지 않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난이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신호가 약한 지역에서 폰을 사용하지 않기, 대화를 가능한 짧게 하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년 틀에서는 예방 행동의 난이도가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예방 행동 수행 의도가 높은 반면, 하루 틀에서는 예방 행동 난이도에 따른 차이 없이 예방 수행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 때에는 건강과 관련된 위험이 심각한 위협으로 지각되어 사람들이 명시된 예방 행동의 어려운 정도에 관계없이 예방 행동을 수행할 의도를 가지지만, 시간적 거리가 멀게 제시되면 예방 행동의 난이도가 낮을 때에만 예방 행동 수행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경욱(2010)은 흥미로운 수업이지만 성적 평가가 까다로운 수업을 결정하는 것은 낮은 성적을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라고 보고 시간적 거리와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가까운 미래로 지각할 경우보다 먼 미래로 지각할 경우에 위험 감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이현숙과 주소현(2014)의 연구에서는 은퇴를 먼 미래의 사건으로 지각하는 사람들보다 가까운 미래의 사건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의 은퇴준비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정(2014)의 연구에서도 자궁경부암의 발생 위험을 먼 시간적 거리로 제시할 때보다 가까운 시간적 거리로 제시할 때 자궁경부암 예방 행동의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때에는 하위수준 해석이 이루어지고 심리적 거리가 멀 때에는 상위수준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점(Trope & Liberman, 2003)을 고려했을 때, 심리적 거리 중 하나인 시간적 거리와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의 관련성을 살펴본 Chandran과 Menon(2004) 그리고 김경욱(2010) 등의 연구 결과도 상위수준에서 위험 회피가 더 낮게 나타나고 하위수준에서 위험 회피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앞의 연구 결과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동정체성 척도

Vallacher와 Wegner(1989)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행동정체성 척도(The Behavior Identification Form)를 개발하였다. 각 문항에는 주어진 상황에서의 특정 행동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대안이 제시되어있으며, 두 대안 중 자신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한 가지 대안은 상위해석수준에 대한 것으로 추상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은 하위해석수준에 대한 것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수준이론과 같은 맥락에 있는 행동정체성 이론을 사용하여 해석수준을 상황이 아닌 개인차 변수로 설정하여 해석수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해석

자기해석(self-construal)은 자신과 타인이 분리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사람은 스스로를 자율적이고 타인과 구분된다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Markus & Kitayama, 1991).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사람은 자신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의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행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이들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고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며, 사회적 지위 및 역할관계 등의 외적 속성에 민감하다. 또한 개인의 독특성보다 집단 내에서의 조화를 추구하며,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자기해석은 개인이 속한 문화적, 환

경적 맥락에 의해 그 차이가 구분되기도 한다. 집단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은 각각 상호의존적 자기해석과 독립적 자기해석이 전형적인 자기 관점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서구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개인을 맥락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반면, 동양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을 구체적 맥락 속에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Cousins, 1989).

한편 Singelis(1994)와 Triandis(1995)는 한 문화 내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적 특성과 무관하게 개인에 따라 독립적 혹은 상호의존적의 자기해석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존에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해있던 한국인들의 집단주의적 가치는 점차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나은영, 차재호, 1999), 개인주의 성향자로 구분되는 사람들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한규석, 신수진, 1999). 본 연구도 자기해석수준이 한 개인이 속해있는 문화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권의 특성과 무관하게 서로 다른 자기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Zhang(2009)의 연구에서는 자기해석 정도가 개인차 변수로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상황적인 점화를 통해서도 상호의존적 성향과 독립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Trafimow, Triandis 및 Goto(1991)의 연구에서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북미와 중국의 학생들을 독립적 자기해석으로 점화했을 때에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점화했을 때보다 더 개인 중심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Ybarra와 Trafimow(1998)의 연구에서도 개인적으로 점화되었을 때 개인적인 태도와 목표가

더 영향을 미친 반면, 집단적으로 점화되었을 때에는 주관적인 규범이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자기해석은 실험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점화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점화된 자기해석은 만성적인 자기해석과 마찬가지로 설득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해석을 상황적으로 점화하여 자기해석이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Lee와 Jeyaraj(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 해석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SDF(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Family and Friends) 점화 과제를 사용하여 참여자들을 독립적 또는 상호의존적으로 점화하였다. 그 뒤, 참여자들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한 가지 CD를 선택하도록 요청 받았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어떤 CD를 선택할지 결정하기 전과 결정한 후에 선택을 위해 제시하였던 여러 대안의 CD들 사이에서의 선호 순위도 평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적으로 점화된 개인들은 자신과 가까운 타인 모두에서 결정 전과 결정 후에 CD의 선호도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호의존적으로 점화된 개인들은 가까운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할 때에는 결정 전과 결정 후에 CD의 선호도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신에 대한 결정에서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자기 해석자들은 자신의 결정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력과 타인에게 미칠 영향력을 모두 걱정하지만, 상호의존적인 자기 해석자들은 자신의 결정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 더 걱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Lee & Jeyaraj, 2014).

자기해석과 위험감수

자기해석과 위험감수간의 관계는 자기해석과 조절초점의 관계에 근거하여 나타난다. 조절초점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촉진 초점자들은 성장을 추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주안점을 두는 반면, 예방 초점자들은 안전을 추구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owe & Higgins, 1997). 이에 따라 선행 연구들은 독립적 자기해석자는 촉진 초점과 연결되고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예방 초점과 연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Lee, Aaker, & Gardner 2000). 예를 들어 상호의존적 자기 해석자는 예방 목표가 현저해지고 예방 목표가 증가하면 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촉진 목표를 가질 때보다 덜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이끈다. Polman (2012)의 연구에서도 상호의존적으로 점화된 참여자 중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은 예방 초점이 더 활성화된 반면 독립적으로 점화된 참여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촉진 초점이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유사하게 몇몇 연구들은 독립적 성향이 강한 개인이 이익의 실현에 중점을 두는 반면, 상호의존적 성향이 강한 개인은 손실 보호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하고 있다(Aaker & Lee, 2001). 예를 들어 Mandel(2003)의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적인 자기해석자가 독립적인 자기해석자보다 사회적 위험과 재정적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적 자기해석자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보다 위험을 더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milton과 Bichal(2005)의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펀드 광고를 보여주었다. 독립적 자기해석을 활성화하기 위한 광고에서는 “기억하

세요, 당신의 삶을 즐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라는 텍스트를 제공하였고,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활성화하기 위한 광고에서는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는 텍스트를 제공하였다. 그 후에 수익률과 위험 정도가 다른 펀드를 제시하였더니, 독립적 자기해석으로 점화되었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률을 최대화하려고 하였다. 반면, 상호의존적으로 점화되었을 때에는 수익률이 낮더라도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 자기해석자들은 자기와 타인의 차이를 지향하고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들은 자기와 타인의 동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영역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해석과 신제품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보다 독립적 자기해석자들이 더 새로운 제품을 채택하려고 할 수 있다. Ma, Yang 및 Mourali(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해석 정도가 소비자의 혁신적인 제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독립적인 자기해석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더 선호하였다. 반면, 상호의존적인 자기해석자들은 점진적으로 새로워진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해석과 해석수준

몇몇 연구들은 자기해석과 해석수준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Liang과 Cherian(2010)의 연구에서는 자기해석과 구체적 자극물 그리고 추상적 자극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호의존적인 자기해석수준을 가지는 중국인이 독립적인 자기해석수준을 가지는 중국인보다 구체적인 자극물을 선호한 반면, 미국인은 두 자극물 간 선호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자극 물이 추상적인 자극물보다 더 많은 이미지를 생성하였지만, 추상적인 자극물에서 미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은 이미지를 생성하였고, 그 이유는 중국인이 미국인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조, 송시연, 장지훈(2007)의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해석자는 실행가능성이 강조된 메시지보다 바람직성이 강조된 메시지가 제시되었을 때 메시지에 대한 설득력과 제품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바람직성이 강조된 메시지보다 실행가능성이 강조된 메시지가 제시되었을 때 메시지 설득력과 제품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상위 해석자는 바람직성이 높은 대안을 선호하고 하위 해석자는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Liberman & Trope, 1998), 이들의 연구도 자기해석과 해석수준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거리 중 시간적 거리와 자기해석수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Lee, Lee 및 Kern(2011)의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자기해석이 시간적 거리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미래 발생할 사건을 더 가깝게 지각하는 반면, 독립적 자기해석자는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더 멀게 지각하였다. 또한 독립적 자기해석자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사건 모두에서 시간적 거리가 멀 때 더 민감한 반면, 상호의존적인 자기해석자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사건 모두에서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 때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Trope와 Liberman(1998)은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하위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맥락적으로 사고하는 반면, 시간적 거리가 먼 사건에 대해서는 상위수준에서 추상적으로 해석하고 탈맥락적으로 사고한다고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위해석자와 독립적 자기해석자의 위험감수 수준이 하위해석자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의 위험감수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적 자기해석을 하는 상위해석자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하는 하위해석자가 위험을 수반하는 결정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반면 독립적 자기해석을 하는 하위해석자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하는 상위해석자의 결정과정에는 자기해석과 해석수준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독립적 자기해석을 하는 하위해석자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하는 상위해석자의 결정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흔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자기해석과 해석수준의 관련성을 살펴본 Liang과 Cheria(2010) 등의 연구에서는 자기해석과 해석수준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독립적 자기해석자들은 상위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하위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자기해석과 해석수준을 둘 다 개인의 성향으로 측정하면 독립적 자기해석을 하는 상위해석자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하는 하위해석자의 비중이 독립적 자기해석을 하는 하위해석자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하는 상위해석자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해석수준은 상황적으로 조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립적 자기해석자이면서 상위 해석자인 경우에는 위험감수 수준이 높은 반면, 상호 의존적 자기해석자이면서 하위 해석자인 경우에는 위험감수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히, 해석수준과 자기해석의 조합이 불일치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하였다. 즉, 독립적 자기해석자이면서 하위 해석자인 경우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이면서 상위 해석자인 경우에는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 보다 중심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독립적 자기해석자로 점화된 조건에서 개인의 해석수준에 따라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 위험감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로 점화된 조건에서 개인의 해석수준에 따라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에서 위험감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설계

2(대상: 자신/ 타인) X 2(해석수준: 상위/하위) X 2(자기해석: 독립적/상호의존적)의 삼원 완전무선 요인설계로 연구 참여자들은 위의 8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독립변수

자기를 위한 결정 및 타인을 위한 결정

Polman(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참여자들은 자기를 위한 결정조건 또는 임의의 타인을 위한 결정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해석수준

Vallacher와 Wegner(1989)가 개발한 행동정체성 척도로 참여자들의 해석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특정 행동을 설명하는 25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각각의 문항마다 두 가지의 보기 문항이 제시되는데 하나는 특정 행동에 대한 보다 추상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특정 행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인사하기’라는 특정 행동에 대해 하나의 보기는 ‘안녕이라고 말하기’라고 제시한 반면, 다른 하나의 보기에서는 ‘친밀함을 표현하기’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인 설명을 제시한 보기를 결정한 경우에만 1점을 추가하여 중앙값을 기준으로 참여자들을 상위해석자와 하위해석자로 구분하였다.

자기해석

Zhang(2009)은 자기해석이 개인차 변수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상황적인 점화를 통해서도 독립적 또는 상호의존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Liang과 Cherian(2010) 등의 연구에서는 자기해석과 해석수준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석수준과 자기해석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는 이번 연구에서는 자기해석수준을 상황적 점화를 통해 조작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보다 안정적으로 상황적 자기해석 점화를 시키기 위해 두 단계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본인이 할당된 조건의 시나리오를 읽고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시나리오는 조속자·방희정·조혜자·김현정(2006)이 Trafimow(1991)의 Sostors 장군 이야기를 각색한 것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독립적 자기해석으로 조작하기 위한 시나리오에는 “도성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제말은 누구를 보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 여러 가능성을 놓고 심사숙고 하였다.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얽매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신감에 찬 인물이 필요하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조작하기 위한 시나리오에는 “성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제말은 누구를 보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 여러 가능성을 놓고 심사숙고 하였다.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옆 사람을 배려해주고 도와주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만한 인물이 필요하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두 번째 단계의 자기해석 점화과제에서는 다시한번 참여자들의 자기해석수준을 상황적으로 점화하기 위해 Lee와 Jeyaraj(2014)의 연구에서 SDF(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Family and Friends) 점화 과제를 사용하였다. SDF 점화 과제에서는 참여자들의 자기해석을 독립적으로 점화하기 위해 “당신이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적으세요.”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의 자기해석을 상호 의존적으로 점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당신 가족이나 친구들과 비슷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적으세요.”라고 지시하였다. 이 방법은 독립적 또는 상호 의존적 자기해석을 점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Oyserman & Lee,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독립적 자기 해석으로 조작하기 위한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써 보세요. 가능하면 빈 칸을 모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였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조작하기 위한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써 보세요. 가능하면 빈칸을 모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였다.

종속변수

위험감수 수준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할 때와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을 할 때 위험감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위험 수준이 높은 대안과 낮은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을 결정하게 하였다.

실험재료

몇 차례의 사전조사를 통해 실험에 적절한 대상물과 그 대상물의 위험 수준에 따른 적절한 가격, 할인율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먼저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의 제품 중에서 스마트폰이 실험 재료로 선정되었다. 그 후 위험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의 적절한 할인율의 수치를 어떻게 제시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할인율이 적혀있지 않은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위험수준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적합한 할인율을 작성하도록 하여 수집된 자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결정하였다. 그 후 다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대상물의 가격과 할인율, 시나리오 상에서 문제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나리오는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분실하여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의 판매자 A는 위험 수준이 낮은 대안으로 판매자 B는 위험 수준이 높은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판매자 A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제품을 직접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판매자 B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자 A에게 구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제품을 직접 가지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입금을 해준 뒤 제품을 택배로 받아보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판매자 A와 B가 판매하는 중고스마트폰의 사용 상태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스마트폰을 분실해서 위약금을 내고 싶지 않고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도 부담스러워 중고거래사이트의 판매자에게 중고폰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사려고 하는 스마트폰의 원래 가격은 75만원인데 중고거래사이트에 글을 올린 판매자A는 그 스마트폰의 원래 스마트폰 가격보다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올렸고, 시간 약속을 해서 구매자와 만나 제품을 직접 보고 같이 근처 대리점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인지 확인을 한 뒤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중고거래사이트에 글을 올린 또 다른 판매자 B는 원래 스마트폰 가격보다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올렸고,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다음날 그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에게 구매하면 제품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가격이 더 비쌉니다. B에게 구매하면 직접 받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판매자 모두 올린 사진에 보이는 스마트폰 상태가 비슷하게 양호합니다. 어떤 판매자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자기 위한 결정 조건과 타인을 위한 결정 조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실험 절차

참여자들의 자기해석수준을 조작하고 조작

점검을 실시한 후,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위험 수준이 다른 두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을 결정하게 하였다. 그 다음 방해 과제인 미로 과제를 수행한 뒤 25문항으로 구성된 해석수준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결 과

조작점검

본 분석에 앞서 점화 과제를 수행한 229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나에 대한 생각과 우리에게 대한 생각 중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는지에 대한 7점 척도의 문항을 제시하여 참여자들의 자기해석(1점: 나에 대한 생각, 7점: 우리에게 대한 생각)을 측정하였다. 점화과제를 수행한 참여자들 중 독립적 자기해석으로 점화되도록 조작한 조건(n=111)과 상호 의존적 자기해석으로 점화되도록 조작한 조건(n=118)의 평균은 각각 $M=2.47(SD=.65)$ 과 $M=4.31(SD=.78)$ 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각각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떠한 자기해석으로 점화하였는지에 따라서 참여자의 자기해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9) = -5.78, p < .01$).

연구 결과

실험에 참여한 229명의 해석수준을 측정한 결과 중위값이 12점으로 나타나 해석수준 측정값이 중위수에 해당하는 10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 경험이 있는 참여자 중 중고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한 참여자 1명도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218명의 참여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대상, 해석수준 그리고 자기해석이 위험감수 구매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본 분석이 로지스틱 모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Hosmer와 Lemeshow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표 1에 제시하였듯이 로지스틱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p > .05$). 이에 따라 위 변수들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자기해석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WALD(1) = 4.475, $p < .05$), 해석수준의 주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ALD(1) = 4.672, $p < .05$).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위해석자가 상위해석자에 비해 위험을 감수할 의도에 비해 위험을 회피할 의도가 9.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점화되었을 때에는 독립적 자기해석으로 점화되었을 때보다 위험을 감수할 의도에 비해 위험을 회피할 의도가 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자기해석, 해석수준의 삼원 상호작용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ALD(1) = 3.740, $p < .05$).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형의 예측력은 79.4%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석수준에 따른 위험감수 정도나 자기해석수준에 따른 위험감수 정도가 각각 어떠한지 보다는 해석수준과 자기해석의 조합에 따라 위험 감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표 1. Hosmer와 Lemeshow 검정

| 단계 | 카이제곱 | 자유도 | 유의확률 |
|----|------|-----|-------|
| 1 | .000 | 6 | 1.000 |

표 2. 대상, 해석수준, 자기해석과 위험감수 수준의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수 | 계수(B) | 표준오차(SE) | WALD통계량 | EXP(B) |
|-----------|--------|----------|---------|--------|
| 대상(A) | -.811 | 1.256 | .417 | .444 |
| 해석수준(B) | -2.380 | 1.101 | 4.672* | .093 |
| 자기해석(C) | -2.351 | 1.112 | 4.475* | .095 |
| A x B | 2.015 | 1.458 | 1.909 | 7.500 |
| A x C | 3.125 | 1.678 | 3.467 | 22.750 |
| B x C | .742 | 1.256 | .349 | 2.100 |
| A x B x C | -3.704 | 1.915 | 3.740* | .025 |

*p<.05

표 3. 대상, 해석수준, 자기해석과 위험감수 수준의 로지스틱 회귀모형 예측력

| | | 예측 | | |
|--------|------|---------|------|-------|
| | | 위험감수 수준 | | 분류정확% |
| | | 위험감수 | 위험회피 | |
| 위험감수정도 | 위험감수 | 33 | 22 | 60.0 |
| | 위험회피 | 23 | 140 | 85.9 |
| 전체퍼센트 | | | | 79.4 |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삼원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그림 1을 통해 살펴 보았다.

독립적 자기해석으로 점화된 조건에서 상위 해석자는 하위해석자보다 자기를 위한 결정과 타인을 위한 결정 모두에서 위험을 감수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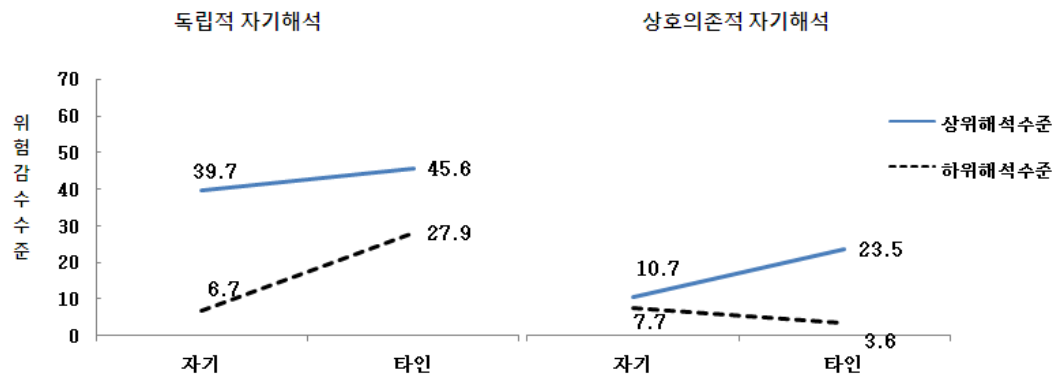


그림 1. 대상, 해석수준, 자기해석의 삼원 상호작용

고 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상위해석자는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할 때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정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해석자는 상위해석자보다 위험 감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할 때 위험 회피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점화된 조건에서는 전반적으로 독립적 자기해석으로 점화된 참여자들보다 위험 감수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할 때에는 상위해석자와 하위해석자 모두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정도가 낮았다. 반면,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할 때에는 자기해석에 따라 위험 감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점화된 상위해석자와 비교해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점화된 하위해석자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논 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장면에서 결정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때도 있다. 따라서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살펴보는 연구들이 수행된다면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각각의 상황마다 더 적합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대상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결정자가 어떤 해석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자의 자기해석수준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가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정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보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결정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독립적 자기해석자가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 자기해석자 또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가 서로 다른 해석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연구는 드물다. 물론 자기해석수준과는 별개로 해석수준과 위험감수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들은 상위해석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하위해석자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 자기해석을 하는 상위해석자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하는 하위해석자의 결정 패턴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독립적 자기해석을 하는 하위해석자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하는 상위해석자의 결정 과정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기존 연구 결과들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 특히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하였다. 즉,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해석수준과 자기해석수준이 불일치할 경우의 결정과정에 중심을 두고 살펴보려고 하였다.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독립적 자기해석자의 위험감수 수준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해석자는 하위해석자보다 위험감수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에 자기해석과 위험 감수 의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점은 자기해석수준과 해석수준의 조합에 따라 결정과정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먼저 독립적 자기해석을 하도록 점화한 경우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하도록 점화한 조건일 때보다 개인이 어떤 해석수준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 자기해석을 하도록 점화된 조건에서 상위해석자는 결정 대상에 관계없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위 해석자는 상위해석자보다 전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도가 낮았고,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할 때에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욱 낮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독립적 자기해석을 하도록 점화한 하위해석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기해석보다 해석수준이 결정과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하도록 점화한 상위해석자의 경우에 나타난 가장 전반적인 특징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해석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다. 상위해석자보다 하위해석자의 위험감수 정도는 더 낮았다. 같은 하위해석자 중에서도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하는 조건에서는 위험감수 정도는 더욱 낮아졌다. 하지만 상위해석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하도록 점화한 경우에는 해석수준보다 자기해석이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크게 두 가지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회피하도록 소비자를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로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결정 상황에서 자기해석 또는 해석수준 한 가지 변수만을 고려하는 것 보다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더 증폭된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타인을 위해 결정을 하고자 하는 하위해석자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하도록 한다면 더욱 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결정을 하도록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소비자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 결정을 하고자 하는 상위 해석자가 독립적 자기해석을 하도록 한다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용기를 더욱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소비자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해석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반면, 소비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기해석보다 해석수준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위험을 감수하거나 회피하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석수준과 자기해석 모두 결과를 조절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맥락에서는 해석수준이, 위험을 회피하는 맥락에서는 자기해석수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험을 기반으로 하는 결정 상황 뿐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의 선택과정을 다루는 연구에도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석수준과 자기해석은 소비자의 심리를 다루는 연구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

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두 변수의 종합적인 영향력을 함께 살펴본 연구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이분형인 경우로 한정하여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매 상황에서의 선택문제는 대안에 따라 구매하고 싶은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보다는 구매 또는 비구매로 표현되는 양자 택일의 문제로 제시하는 것이 보다 현실의 구매 결정 상황을 담아내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으로는 수행한 결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물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 위험을 감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 이유의 일부를 본 연구가 소비자의 위험 감수를 다루고 있지만 일반적인 구매 상황 안에서의 위험 감수를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주식투자와 같이 위험 추구의 손익이 보다 극명하게 느껴지는 주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면 결정 대상과 개인 성향에 따른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 다른 실험 재료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타인을 위한 결정을 할 때 결정자와 결정의 수혜자와의 관련성이 어떠한지도 결정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해석수준,

자기해석 변수와 함께 다룬다면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다양한 결정 상황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조숙자, 방희정, 조혜자, 김현정 (2006). 개인특성 및 자아해석 양식의 단기 활성화에 따른 도움행동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3), 267-286.
- Beisswanger, A. H., Stone, E. R., Hupp, J. M., & Allgaier, L. (2003). Risk taking in relationships: Differences in deciding for oneself versus for a friend.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5(2), 121-135.
- Danziger, S., Montal, R., & Barkan, R. (2012). Idealistic advice and pragmatic choice: A psychological distance accou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6), 1105-1117.
- Fischhoff, B. (1992). Giving advice: Decision theory perspectives on sexual assault. *American Psychologist*, 47, 577-88.
- Hamilton, R. W., & Biehal, G. (2005). Achieving Your Goals or Protecting Their future? The Effects of Self-View on Goals and Cho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2, 277-283.
- Kray, L. (2000). Contingent weighting in self-other decision 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 Human Decision Processes*, 83(1), 82-106.
- Kray, L., & Gonzalez, R. (1999). Differential weighting in choice versus advice : I'll do this, you do that.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2, 207-217.
- Laran, J. (2010). Goal management in sequential choices: Consumer choices for others are more indulgent than personal cho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304-314.
- Lerner, E., Streicher, B., Sachs, R., Raue, M., & Frey, D. (2014). The effect of construal level on risk-tak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Eur. J. Soc. Psychol.
- Lerner, J., & Tetlock, P. (1999).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accountabi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255-275.
- Loewenstein, G., Weber, E. U., Hsee, C. K., & Welch, N. (2001). Risk as feelings. *Psych. Bull*, 127, 267-286.
- Mandel, N. (2003). Shifting selves and decision making: The effects of self-construal priming on consumer risk-tak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0(1), 30-40.
- Pollmann, M. H., Potters, J., & Trautmannb, S. T. (2014). Risk taking by agents: The role of ex-ante and ex-post accountability. *Economics Letters*, 123, 387-390.
- Polman, E. (2010). Information distortion in self-oth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432-435.
- Polman, E. (2012). Self-other decision making and loss avers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9, 141-150.
- Polman, E. (2012). Effects of self - ther decision making on regulatory focus and choice overloa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5), 980-993.
- Polman, E., & Emich, K. J. (2011). Decisions for others are more creative than decisions for the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 492-501.
- Vallacher, R. R., & Wegner, D. M. (1989). Levels of personal agency: Individual variation in action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60-671.
- Van Boven, L., & G. Loewenstein, G. (2003). Social projection of transient drive states. *Psych. Bull*, 29(9), 1159-1168.
- Van Boven, L., & Loewenstein, G. (2005). Cross-situational projection. *The Self in Social Judgment*, Psychology Press, 43-64.
- Van Boven, L., Loewenstein, G., & Dunning, D. (2003). Mispredicting the endowment effect: Underestimation of owners' selling prices by buyer's agent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1(3), 351-65.

원 고 접 수 일 : 2017. 04. 12.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5. 17.

게 재 결 정 일 : 2017. 05. 19.

Effect of Self-Construal and Construal Level on Decision-Making for Oneself or for Others

Kim Hwa Min

Korea National Open Unoversity

It is inevitable to make small and big decisions unceasingly in our daily lives. They include decisions not for oneself but for others. In order to investigate how the decisions are made in risk-taking situations,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self-construal level and construal level of the participant could impact in risk-taking situations. Each participant was randomly assigned to one of eight conditions in the experimental of 2(decision object: self/other) X 2(construal level: high/low) X 2(self-construal: independent/interdependent) 3-way completely randomized factorial design. The result also shows an effect of correlation among decision object, construal-level, and self-construal level. Participants who have high-construal and independent self-construal take high risk choices for both self and others, whereas participants who have low-construal and independent self-construal take low risk options for self and high risk options for others. On the other hand, in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condition, they take low risk option for self regardless of their construal levels, whereas participants who have high-construal take high risk options for others and participants who have low-construal take low risk option others. The research results implicate that people have a tendency to take higher risks for the choices for others than for themselves but the tendency diminishes when they feel responsibilities or similarities with the others. Through the measurement of construal levels and self-construal levels, it has been identified that individuals' variable also has an influence on the results. The effect of types of purchase decision beneficiaries and deci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making risk-taking decisions, which has been investigated i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provide implications to risk-taking decisions in various area.

Key words : self-other decision- making, self-construal, construal level, risk-taking